

『인문논술 벼락치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오표

정오사항으로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추가 날짜	위치	내용
9.14	138p [문제3] 발문	[문제3]의 발문을 교체해야 합니다. [문제3] <보기3>을 토대로 (사)의 사례가 오마주(hommage)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 <보기 1>에 제시된 SF(Science Fiction) 소설의 특징을 요약하고, <보기 1>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다빈치와 (마)의 오스미 중 누가 더 SF 소설 작가에 적합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9.14	243p (바) 지문 밑	(사) 지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 B국의 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개혁 찬성론자는 기금이 한 번 고갈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대가 되면 연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고,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찬성론자는 또한 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금 혜택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층이 ‘지금 내는 만큼 나중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며, 그러면 기금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론자는 신속한 개혁을 통해서만이 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사회·문화』재구성